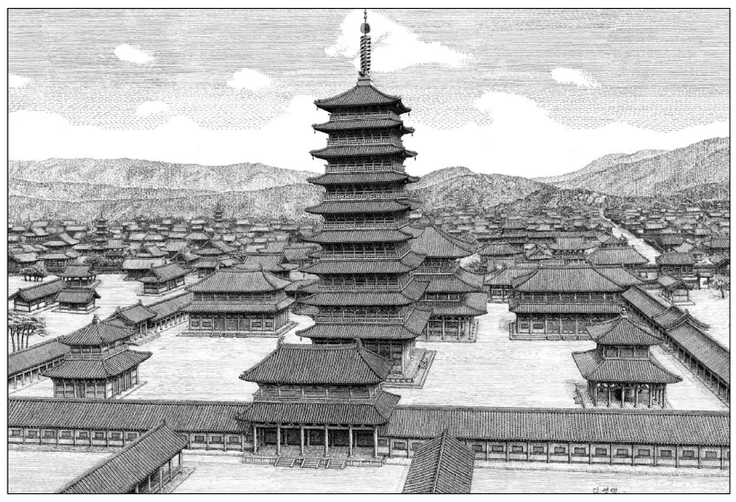

김영택 作, 황룡사 전경 복원화

우리문화, 우리불교 해외로, 해외로…

해외 문화불사 현장

김영택 펜화 일본 展…도쿄 한국문화원 7.26~8.21
코리아로투스 연합합창단 이탈리아 초청공연 6.27


코리아로투스 합창단이 이탈리아 두오모성당에서 찬불가 공연을 펼치고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해외에서 우리문화가 불사가 되고 있는 전시와 공연을 소개한다. 고찰 등 한국의 고건축을 펜화로 그려온 김영택 화백의 첫 일본 전시와 코리아로투스 연합합창단의 이탈리아 초청 공연이다. 김영택 화백의 전시에서는 미황사 대웅보전을 비롯한 한국의 고건축이 호류지 금당 등의 일본 고건축과 함께 소개됐으며, 코리아로투스 연합합창단은 가톨릭 국가인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찬불가를 선보였다.

김영택 펜화 일본展

韓日 고건축 펜화 30여 점
김영택 펜화 첫 해외 전시

천년고찰 등 우리의 전통건축을 펜화로 그리며 한국 펜화의 지평을 넓혀온 김영택 화백이 7월 26일부터 8월 21일까지 일본 도쿄의 한국문화원에서 '김영택 펜화전'을 개최한다.

김 화백은 이번 전시에서 한국 고건축물을 그린 작품 15점과 일본 고건축물을 그린 작품 14점, 그리고 그 밖의 지역 작품을 합쳐 총 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7월 26일에 열렸던 개막식에는 구루시마 히로시 국립역사민속박물관 관장 등 일본의 문화예술계 거물들이 대거 참석해 화제가 됐다. 펜화 장르가 생소한 일본 화단에서는 특히 나라 호류지 금당 및 5층석탑 복원도와 오사카성, 교토 기요미즈데라 등 일본 고건축물들을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그려낸 김 화백의 펜화에 감탄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김 화백이 일본 고건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일본의 고건축이 우리의 건축과 가깝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오래전 우리가 일본에 전해준 건축이 어떻게 정착되었는지 궁금했던 김 화백은 호류지 금당 등 일본의 고건축물들이 우리의 건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랜 동안 한국의 고건축을 그려온 김 화백의 일본 고건축물 작업은 한국문화의 원류를 찾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번 전시의 의미는 바로 거게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미황사 대웅보전, 황룡사9층탑 복원도, 불국사 대석단, 경복궁 근정전 등 한국의 고건축물들이 일본의 고건축물들과 나란히 전시되고 있는 이번 전시는 일본에는 없는 고건축물 펜화를 통해 일본인들도 몰랐던 고건축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동시에 일본 고건축이 한국의 건축에서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코리아로투스 합창단 이탈리아 공연

두우모 성당서 첫 찬불가 공연
인천 법명사 등 8개 사찰 연합

이탈리아에서 우리 찬불가가 울려퍼졌다. 코리아로투스 연합합창단은 이탈리아 삐안카스타냐이오시 초청으로 6월 27일 두오모성당에서 찬불가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탈리아 성당에서 우리 찬불가 공연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 법명사, 제천 노노정사, 시흥 영각사, 송추 보타사, 서울 석가사, 까루나합창단, 아르도르합창단, 동국대 교수합창단 등 8개 합창단 70명으로 구성된 코리아로투스 연합합창단은 이탈리아 성악가들과 한국 성악가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공연에서 우리 찬불가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민요, 월드파퓰러뮤직 등을 불러 현지인 300여 명의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와 갈채를 받았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 지휘자를 비롯해 반주자, 합창단 단원들 모두 한국전통의상인 한복을 입고 공연해 한국의 불교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함께 알렸다.

이번 공연은 이탈리아에서 유학생활을 했던 불자 음악인 이동원, 박성규, 임형주 등 성악가 3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삐안카스타냐이오시 시장과 주요행정직원들은 한국찬불가 사절단인 코리아로투스 합창단을 환영하면서 한 · 이 양국 간의 문화교류를 이어갈 것을 다짐하며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번 코리아로투스 합창단의 공연으로 찬불가를 비롯한 우리 불교문화가 앞으로 한 · 이 문화교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佛法으로 행복 전파하는 비구니 유튜브 스타

보현 스님(부처님마을 주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지만 누구나 행복한 것은 아니며, 늘 행복하게 산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가. 요즘 누구보다 그 행복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이가 있다. 지난 6월 〈카르마 100일 보현 스님의 행복체크카드(이하 행복체크카드)〉를 출간한 보현 스님이다. 베스트셀러가 된 〈행복체크카드〉로 요즘 누구보다 많은 이들에게 행복에 대한 담론과 불법(佛法)을 전하고 있는 스님은 책뿐만 아니라 방송과 유튜브에서도 행복과 참선 등 불법(佛法)을 전하는 스타 스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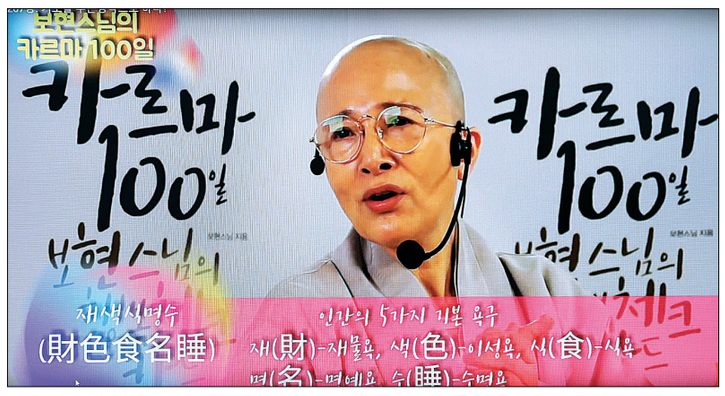
BBS '보현 스님의 행복체크카드'

스님은 요즘 방송을 통해서도 행복과 불법(佛法)을 전하고 있다. BBS불교방송의 '보현 스님의 행복체크카드'이다.

"스님의 염불 노래 중에서 '나는 행복합니다'를 들으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 정말로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행복으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월~수요일(본방 · 오후 5시 20분) 방송되는 '보현 스님의 행복체크카드'는 시청자가 보내온 행복과 삶에 대한 궁금증을 스님이 풀어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재방 · 월~수 밤 11시 40분, 삼방 · 목~토 오전 8시 40분)

스님은 "내 생각의 머리, 즉 마인드를 리셋해야 합니다. 깨끗이 마음을 청소해야 한다는 것이 답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를 하며 나를 신비하게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 방법은 부처님 공부밖에 없습니다"고 말한다. 1회 방송 시간이 약 5~10분인 스님의 법문은 좀 더 행복해지기를 꿈꾸는 사람들, 현실에 지친 사람들, 삶의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지금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보현 스님은 유튜브 '마을 부처님' 채널을 통해 현대인들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한다.

책, 방송, 유튜브서 행복 등 치유설법
BBS '보현 스님의 행복체크카드'서 행복강의
유튜브 '보현 스님의…' 등 조회수 5천 돌파

유튜브 스타…조회수 5천 돌파

'마을부처님'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하는 보현 스님은 360건이나 되는 꾸준한 업로드를 통해 현재 구독자 5천을 돌파했다. 보현 스님은 유튜브 컨텐츠 '보현 스님의 카르마 100일', '보현 스님의 나는 행복합니다'를 통해 생활, 경제, 사회, 정치,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대인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치유해 주고 있다. 보현 스님 특유의 유쾌하고 명쾌한 설법이 돋보인다.

스님은 "세상이 진화할수록 그에 맞추어 쉽고 빠르게 대중들과 소통해야 한다. 현대의 대중은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정신치유법을 원하며, 이를 만족케 하는 수행법을 추구한다."고 자신이 방송이나 유튜브를 이용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래서 스님은 외부에서도 간편하게 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짧은 동영상 강의를 매일매일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 내용이 궁금한 독자는 유튜브에서 '카르마 100일'을 검색하면 스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스님의 수행고백서, 행복을 전하다

보현 스님은 학창시절이던 1980년대 남산 길을 산책하다 영화감독의 눈에 띄어 모델로 입문했다. '이경미'라는 예명으로 모델 겸 가수, MC 등으로 활약했다. 스님은 인기 절정이었던 1986년에 홀연히 출가했다. 출가 이후에는 찬불가요를 작사 · 작곡하여 음반을 발표하고 마음 치유 희망 콘서트를 열며 힐링 멘토로 활동한 바 있다.

스님의 책 〈행복체크카드〉는 수행자인 스님의 수행 고백서로, 남은 삶을 다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인생 지침서이다. 수행자의 삶을 살면서도 한 때 죽음을 각오했을 만큼 자신의 삶을 나락 끝까지 내몰았던 스님은 그 수행의 끝에서 얻은 깨달음을 행복 추구의 방법론으로 정립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불교적 치유의 손길을 내민다.

스님은 1999년 자전소설 〈타래〉와 〈너는 부처 해라 나는 중생할 테니〉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2004년에는 몽각산 기슭의 폐교에서 어린아이들을 돌보면서 느낀 이야기를 담은 〈부처님 마을〉을 펴냈으며, 2014년에는 출가 인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이룬 수행담 〈땅꽁 스님과 애벌레 선(禪)〉을 출간했다. 박재완 기자

